



추암해수욕장 야경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사람들을 담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사진동호회 - *빛으로 그린 그림*

☞ 책장 깊은 곳에서 꺼낸 앨범 안에는 많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찍은 해맑은 내 모습과 세상과 닮아가는 지금의 모습. 하지만 하나 공통된 것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가진,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그림으로 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과 사물을 통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감정평가협회의 사진동호회 '빛으로 그린 그림'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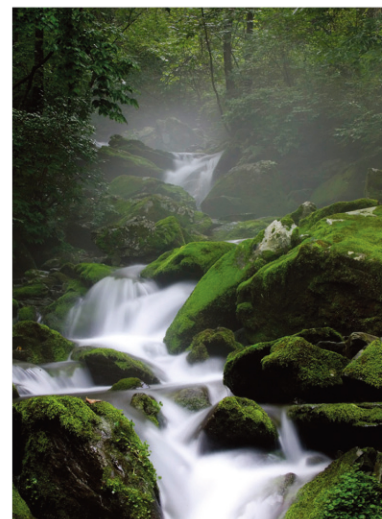
안동하회마을 탈춤공연

추억! 그 소중한 기억 ☞ 누구나 한번쯤은 짐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하고 그안의 사진을 통해 옛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은 우리에게 기록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 추억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매체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현재에는 비디오 카메라 핸드폰 동영상 등을 통하여 보다 사실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관할 수도 있고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화 하여 오랜 시간동안 생생하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주는 아나로그적 감성은 아직도 우리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운동회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졸업식에서 부모님과 찍은 사진, 연애시절 집사람과의 추억들, 첫아이의 백일사진·돌사진, 이렇게 우리에게겐 잊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랑스러운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행의 과정 또는 일상에서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멋진 자연 풍경을 접했을 때 우리는 이런 순간순간을 기록해두고 시간이 흐른 후 이것을 추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영상 등 다른 매체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지난 일을 회상하게 하는 감성적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사진동호회, 빛으로 그린 그림 ☞ 한국감정평가협회 사진동호회 '빛으로 그린 그림'은 빠른 속도로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카메라(디지털 카메라)의 정확한 사용법은 물론 사진에 대한 기초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사진을 접하고 사진생활을 즐기려는 목적으로 2007년 2월에 한국감정평가협회 임·직원 및 회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창설되었습니다.

현재는 협회 임·직원 9명 및 회원사 임·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의 사진이론 교육 및 정기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에는 총 5회의 이론교육 및 출사가 있었으며, 이론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출사를 통하여 직접 적용해 보는 현장위주의 모임을 개최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정보 공유를 통하여 보다 사진을 가깝게 접하고 자연스러운 실력향상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전이끼계곡

누구나 즐기는 사진 나도 멋지게 찍고 싶다!! ☞ 누가 찍은 사진을 보면 '참 예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잘못된 오해중의 하나는 '저 사람은 사진기가 좋아서 사진이 잘나오는 것이고 내 것은 사진기가 나빠서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진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보급형 카메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이 만들어 집니다. 오히려 사진기 보다는 사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주 간단한 지식을 알기만 해도 사진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 가족이나 친구·애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동호회에서는 사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소중한 추억들을 담을 수 있는 사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산바람꽃



아침고요수목원에서의 단체사진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다 ☞ 동호회의 초창기에는 의욕은 넘쳤지만 실제 촬영의 순간에는 긴장하고 또 긴장하는 연속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미리 사전교육을 하였음에도 실제상황에서는 그 기억은 하얀 도화지로 변해 버리는 것은 왜인지...

그러나 열심히 셔터를 누르며 찍고 또 찍었던 순간들, 야경촬영법을 익히기 위해 2007년 2월 추웠던 응봉산을 밤에 올라 오들오들 떨면서 셔터를 누르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을 맛보았던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실력은 늘어가게 되었고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자 7월에는 처음으로 선유도공원에서 모델출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우물쭈물, 모델에게 말도 제대로 걸지 못해서 모델분도 동호회원들도 모두 민망해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7년이 훌쩍 지나가고 12월 22일 일 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동해안 추암해수욕장으로 결산출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봉고차를 렌트하여 이동하면서 오고가는 이야기 속에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고 추암해수욕장의

야경과 쫓대바위의 일출을 기대하며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서도 야경을 찍으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장엄한 일출을 기대했던 우리는 아침이 되어가며 갑자기 흐려지고 구름이 몰려드는 광경에 맘을 졸이면서 일출을 기다렸으나, 결국 장엄한 일출의 오메가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구름사이로 살짝 고개 내미는 해를 담을 수는 있었으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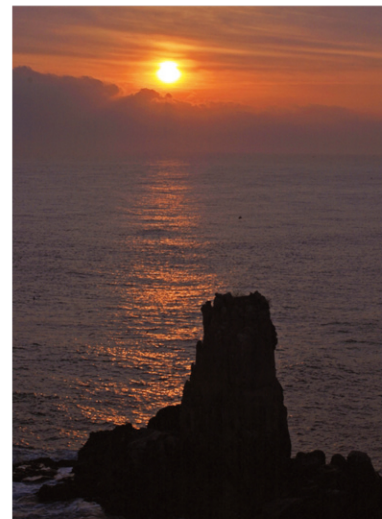
이렇게 다져진 우리의 사진실력은 2007년 가을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브로슈어 제작에 필요한 사진을 우리 동호회원의 사진으로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동호회원 상호간 돌잔치 등 집안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동호회원들이 직접 촬영하고 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봉사활동 역시 우리의 의무이다 ☞ 사회봉사.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되돌리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진동호회에서는 사진을 좋아하고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무의탁 노인들을 보살피는 양로원시설이 많다는 것과 그분들에게 영정사진이 없어 돌아가신 후에도 영정사진 없는 빈소가 마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동호회에서는 그분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서 선물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협회의 사회봉사활동과도 취지가 맞아 협회의 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분기별 1회씩 연간 총 4회의 영정사진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 등산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분



울릉도 풍경



추암 쫓대바위 일출

들 한분 한분을 살펴보다라도 정말 좋은 분들만 모아 놓은것 같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같은 업계의 동료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행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개인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새벽에 두물머리에서 만나자 하고 추운 새벽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모이는 사람들, 새벽에 따듯한 한 잔의 커피와 함께 몸을 녹이며 웃음을 같이하는 사람들..어쩌면 가족보다 더 진한 동료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4월에는 또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가족사진 촬영회입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의 가족사진은 물론 행사 당일 가족들과 촬영장소(논현동 스튜디오 임대)에 오시는 협회 임·직원가족 및 회원사 임·직원 가족들께 대형 인화하여 집에 걸어놓을 수 있는 가족사진을 촬영해 드리는 행사입니다. 가족사진은 특별한 기회가 있기 전에는 촬영하기도 힘들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사진의 품질은 최상이며 전문 사진관과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아! 물론 인화는 각자 알아서 해주셔야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인화하실 수 있도록 인화업체와 협의해볼 예정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는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추억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고 사진으로 기록될 것인지 벌써부터 설레 입니다. 사진동호회 ‘빛으로 그린 그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협회 임·직원 및 회원사 임·직원들께서 저희와 함께 좋은 추억을 함께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